

작은 체험이 정착을 이끈다, 살고싶은 ‘고흥’

자치CEO

공영민
고흥군수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전국 시도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남이다. 그중에서도 고흥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5.7%로 전국 최고의 초고령사회이다. 한때 24만명이 넘던 고흥군의 인구는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 유출로 이제는 6만명대까지 감소했다.

인구의 유입과 정착은 고흥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고흥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해결, 접근성 개선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흥군민들의 비전인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 드론(UAM),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전략산업과 함께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 모델이 바로 고흥스테이다.

고흥스테이는 고흥에 관심을 갖고 여가, 휴양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체류하

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폐허가 된 한전사택을 리모델링하여 12세대,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갖춘 고흥스테이 1호를 탄생 시켰다. 이후 전국적인 관심으로 유튜브 소개는 200만 조회수와 그동안 3기 참여자 모집까지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들 중 다수가 고흥에 정착하여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세대당 평균 12명의 지인들을 고흥으로 초청해 연간 1000여명의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며 지역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더해 지난 3월 완공한 고흥스테이 2호는 남양면 귀농어귀촌 행복학교 내에 위치하여 세대별 텃밭과 공동실습농장, 농자재 창고를 갖춘 정원형 모델로, 입주자가 직접 땅을 일구며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어촌형, 산촌형 등 다양한 테마의 고흥스테이를 확대해 체험에서 정착으로 이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인구 유입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 다른 정착 모델인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남양초등학교 인근에 6동의 주택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난해 2학기부터 현재까지 4가구, 13명의 유학생과 가족이 전입하면서 폐교 위기의 학교에 그동안 없었던 교감 정원을 확보하고, 젊은 인구 유입으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년에는 기

존 부지 내에 주택 2동을 추가 건립하고, 도시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특색있는 커리큘럼으로 더 많은 유학생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고흥~광주 고속도로와 경전선 별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하여 고속전철 고흥역과 녹동역을 건설하는 철도 건설,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까지 4차선 도로 확장 등 3대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점안면 청년 공공임대주택·스마트영농빌리지 등 권역별로 총 50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전남형 만원주택 50호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40호는 각각 착공과 준공을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더해 월 최대 480만 원의 임대료 지원과 신혼부부 대출 이자 보조 정책 등을 더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고흥군이 선택한 ‘인구유입 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과정이다. 고흥스테이와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증명하듯, 사람이 머물고 체험하며 정착하는 작은 희망들이 모여 다시 활기 넘치는 고흥의 내일을 만들겠다.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 비전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 순간, 희망찬 고흥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

기고 박복률 강진군 문화관광홍보담당관



‘남도’, 품격은 지켜야 한다

1990년대 중반, 문화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강진을 ‘남도답사1번지’라 명명했다. 이는 단순한 관광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 근대문학과 예술, 불교와 유교,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땅이라는 역사적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강진은 유 교수가 직접 걷고 머물며 느낀 체험 위에 쌓인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이다. 그 상징성을 기리며, 강진군은 1996년 유홍준 교수를 ‘강진군 명예군민 1호’로 위촉했다. 이는 단순한 감사의 의미를 넘어, ‘남도답사1번지 강진’이라는 이름의 출발이 단지 행정의 브랜딩이 아니라, 문화인의 철학과 현장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30년 가까이 강진군은 이 이름의 가치에 걸맞은 실천을 해왔다. 다산초당, 백련사, 영랑생가, 사의재, 청자도요지, 가우도, 월출산 백운동원림 등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관광객들에게 제공했고, 군민들도 ‘답사’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다져왔다. 이름 하나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정신을 생활 속에 정착시킨 것이 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이 문화유산 위에 또 하나의 성과를 올렸다. 바로 ‘강진 반값여행’ 정책의 성공적 안착이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시작된 이 정책은 전국에서 이례적인 주목을 받았고,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할인 정책이 아니라, ‘강진답게 여행하는 방법’을 만든 문화·행정 복합정책이었고, ‘남도답사1번지’라는 브랜드의 현재형 실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최근 출간된 ‘남도답사0번지 영암’이라는 책은 우리 지역민에게 깊은 아쉬움과 당혹감을 안긴다. 단순히 숫자 앞뒤의 문제가 아니다. 30년 가까이 정성껏 가꿔온 타 지자체의 정신적 자산을, 창

의적 고심 없이 유사한 포장으로 차용한 점에서 이는 지역 간 상생과 신뢰라는 공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책의 저자가 영암군 출신의 유명 언론인이라는 사실은 씁쓸함을 더한다.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했을지 모르나, 언론이라는 공적 자산을 기반으로 자기 고향을 띄우기 위한 방편으로 타 지역의 브랜드 상징을 차용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자의 영향력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에, 그 책임도 무겁다. 지역 간 건강한 경쟁이 아닌, 브랜드 서열화를 조장하는 듯한 시각은 남도의 가치와 정신을 가볍게 만들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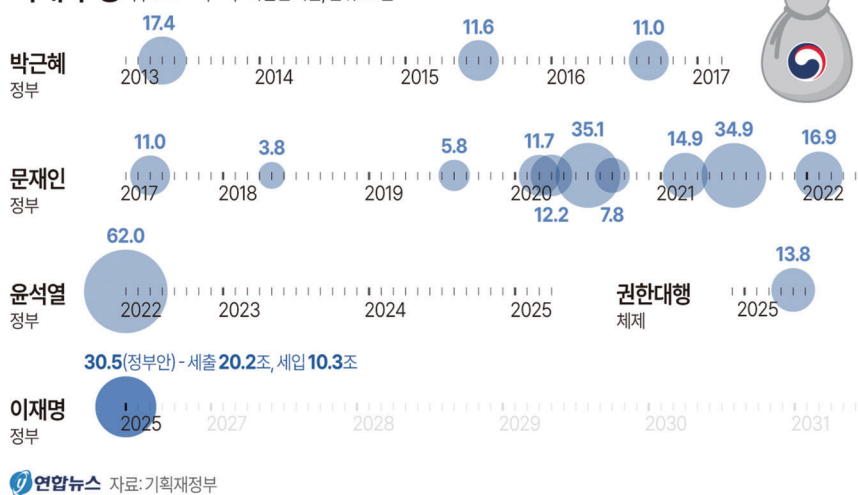
영암 역시 월출산과 왕인, 마한문화 등 고유한 콘텐츠를 지닌 훌륭한 고장이다. 그렇기에 더욱 영암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해야 진정한 의미의 브랜드가 된다. 타 지자체의 상징 위에 ‘0번지’라는 포장으로 우위를 암시하는 듯한 방식은, 상생보다는 서열화의 유희에 가까워 보인다.

브랜드는 누가 더 진정성 있게 가꾸고, 시대에 맞게 실현해 왔느냐에 따라 신뢰받는 법이다. 강진군은 ‘남도답사1번지’라는 이름을 감투처럼 쓴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답사의 길을 열고, 그 길을 걷는 수많은 방문객과 함께 그 의미를 실천해 왔다. 유홍준 교수가 이름을 주었고, 강진군민이 그 이름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다.

나는 영암의 이번 ‘남도답사0번지’ 출간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다. 다만 이 행보가 상생의 취지와 지역 브랜드 윤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역적 영향력을 가진 저자의 책무에 걸맞은 판단이 었는지를 되묻고자 한다. 모방이 아닌 창조, 경쟁이 아닌 존중.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 브랜드가 나아가야 할 건강한 길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역대추경 규모·시기 의결일 기준, 단위:조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